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09년 5월호

통권 제 191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4월 교우소식

감 사

- ❁ 최창학·정성라교우, 점심식사에 떡 제공.
- ❁ 고 유정자권사 유족, 12일(주일)점심식사 제공.
- ❁ 장미화권사, 독거노인에게 쌀 5가마 기증.
- ❁ 광원섭집·한행자권사.
독거노인 반찬배달용 그릇 기증.
- ❁ 김태량교우·신순예권사, 부활절 계란 1000개 기증.

입 원

- ☞ 차은미집사, 서울의료원 311호.
- ☞ 김영이교우, 중앙정형외과 306호.
- ☞ 오현숙권사 모친, 서울 아산병원 9434호.

별 세

- ☞ 고 김영한권사 (80세, 이종서장로·김행미집사 모친)
3월 29일 별세 1일 장례.

이 사

- ❁ 유명근집사·임종일권사
성북구 동소문동4가 103-20 삼보빌 603호.
- ❁ 노기석·배미정 교우
강북구 미아동 1357번지 삼각산 아이온(아) 115동 901호

다문화가정 초청

여전도회

다문화가정 초청행사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은 4월 16일 오전 11시 남산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대절된 2대의 버스에서 쏟아져 내리는 78명의 다문화 가족들의 낯선 외모와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커다란 눈동자를 대하며, 표식을 위한 빨간 스카프를 목에 매어 주며,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는 그들을 보며, 날씨는 선선하고 꽃은 만발하여 남산은 천국의 동산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비가 온 뒤라 시야가 확 트인 N타워에서 서울 시내를 조망하며 옛된 얼굴의 아기엄마들과 배불뚝이 임산부들이 어울려 사진을 찍고 웃음을 터트리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한없이 느껴지는 그녀들을 재촉해 교회에 도착하자 하차장소와 로비에서 기다리던 여전도회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친교실로 안내하였고 황영태 담임목사님께서 환영과 축복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면 이제 갓 대학생이 되었을 어린 사람들이 낯선 나라에 시집와서 자식들을 챙기느라 정신없는 모습이 안타까워, 권사님들께서는 아이들을 하나씩 맡아주셨습니다. 안고, 업고, 열르고, 사진을 찍으며 친손주처럼 귀여워해주는 가운데 아이엄마들은 흥분해진 몸으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를 연발하며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포도알처럼 까맣고 유난히도 큰 아기들의 눈망울을 보며 '이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사랑 가운데 잘 자라기를' 축원했습니다. 각자 자기나라(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트루크메니스탄) 말로 "나는 기뻐요."를 부른 후 안동 핸드차임연주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듣고 윤 장로님댁 정원을 거쳐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민속박물관과 경복궁은 수학여행 온 학생들로 북적북적했습니다. 경회루에서 인원점검을 한 결과 이탈된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앞이 아득해져서 학생들 속을 헤매며 다니다

예서엄마 아이린을 찾았고 푸른 눈동자의 동환이 엄마와도 상봉하게 되자 우리는 외모나 언어에 관계없이 그저 반갑기만한 자매들로 일싸안았습니다. 친정에 왔다 가는 딸들처럼 선물(여전도회에서 준비한 가방, 아동부 특별헌금으로 마련한 크레파스, 선교국에서 준비한 미역다시마, 매일유업이 기증한 유제품, 도서출판 푸른 숲에서 보내온 동화책, 코리아나 화장품, 박장로님께서 주신 초코렛 등)을 한 아름 안고 하경하는 버스에 오르며 "완전 감동" 이라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성명옥 목사님이셨습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 100주년의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돌아갔을 다문화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한국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교우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창립 100주년을 맞아 준비한 다문화가정 초청행사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협력하신 여전도회 회원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 나들이 감사합니다.

안동교회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초청 프로그램에 초대받아서 하루를 즐겁게 서울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 주선하시느라 애쓰신 안동교회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편찮으신 이정숙 장로님께서 시작을 해주셨고, 이주영장로님, 홍세진 권사님, 강재덕 권사님, 조정귀 권사님, 그 외 권사님, 집사님들 아름다운 마음으로 한결 같이 따뜻하게 준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강재덕 권사님께서 준비위원회 총무로 활동하시면서 전화로 메일로 연락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수고로움 때문에 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작가로 열심히 뛰어다니신 김 권사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 속한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들과 봉사자 포함하여 56명과 애기들 22명이 교회에서 보내주신 관광버스 두 대에 나누어 타고 88도로를 지나면서 한강을 설명하고 서울을 안내하면서 입성하여 11시에 남산에 도착하였습니다. 미리 나오셔서 대기하고 계신 권사님들이 빨간 마후라를 하나씩 목에 걸어주어 다문화가정 나들이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팔각정을 거쳐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간 쉬는 동안 이들은 가는곳마다 흔적을 사진으로 담기가 바빴습니다. 교회로 들어가 목사님의 간단한 축복의 환영인사를 듣고 식사기도 후에 정성껏 마련해 주신 식사를 잘 먹었습니다. 식사할 때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애기들을 안아주셔서 마음껏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까지 자상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 초연으로 핸드차임으로 첫선을 이들에게 보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윤장로님 댁을 거쳐 민속박물관과 경복궁을 돌아보고 무사히 돌아와서 저녁까지 챙겨주시는 교회의 사랑과 섬세함을 이들이 맛보았습니다. 저희 센터에 속한 결혼이민자(다문화 가정)들이 아직은 한국이 많이 서툴고, 문화나 관습,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한번 행사를 하려면 무척 어렵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매일 절감합니다. 알림장을 만들어 가정으로 보내도 가족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여러 번 전화로,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하지만 당일에는 나타나지 않든가 약속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든지 하여 진행할 때 약간의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하고 10여명이 나오지 않아 걱정을 하였지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안동교회 여전도회에서의 기도와 정성과 배려로 아주 좋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물도 다양하게 배려하여 요모조모 챙겨 주셔서 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잘 모르고 있기에 이번 기회를 통해 교회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가 이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의 친정 나들이가 더 빛이 나겠지요.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신 황영태 목사님과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소장 성명옥 목사

"신 페스탈로찌"

박정음 장로
우리교회 중보기도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학교의 "신 페스탈로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학교에 총각선생님이 서너 분 계신데 그 중 신봉렬 선생님이라는 분이 2년전 결

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부는 고향(대구)에서 고등학교 교회 동창생이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12년 지기였습니다. 신 선생님은 농구를 좋아하셔서 농구 동아리를 만들어 늘 퇴근 후에도 남아서 학생들과 농구를 즐겨하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정도가 조금 심하다 싶어 지나는 사람마다 "신 선생! 결혼하면 농구할꺼야? 집에 갈꺼야?"하고 농담 삼아 큰 소리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총각선생 심봉렬 선생님의 결혼식은 다가왔고 마침내 축복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교직원들과 학생들로 결혼식장이 꽉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5개월 쯤 후 2세가 생겼다는 소식에 모두들 축하한다고 한 마디씩 거들기를 "농구할 거야? 애 볼꺼야?"하며 놀리기도 하였습니다. 신 선생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 마치 60년대 초등학교 복도에 걸린 페스탈로찌의 사진을 연상케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무리 말썽을 피는 학생이라도 옥박지르거나 심한말로 상처를 주는 법이 전혀 없는 선생님입니다. 언제나 학생처럼 청바지 점퍼 차림에 한쪽 팔은 항상 학생의 어깨에 얹혀 있고, 귀여운 막내 동생을 데리고 놀 듯 항상 정답게 소곤거리며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늘 "신 페스탈로찌"라고 부릅니다. 제게는 새까만 후배이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맡은 과목은 재미없는 수학이지만 조는 학생 한 명 없도록 늘 흥미롭고 열정적으로 가르치시어 수학이지만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부가 임신한지 7개월 이 될 즈음에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부도 대구의 어느 초등학교 교사이었는데 결혼 후, 현재는 경기도 구리시 초등학교로 전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부는 치료를 위해 병가와 휴직을 내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치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신 선생님이 모시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우리학교에서도 신선생님에 대한 비상조치를 취하여 담임도 바꿔 드리고 수업도 당겨 드려서 치료에 전심하도록 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서둘러 치료 계획을 잡았습니다. 먼저 임신 7개월 된 아이는 당장 제왕 절개로 출산을 하고, 이어서 항암 치료를 하기로 의료진에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출산 예정이 아직 멀었

는데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의 몸무게가 1kg미만이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로 하였는데 1kg 700g이라서 인큐베이터에는 들이지 않고 아이는 입원을 시키고, 산모는 정밀 진단 결과 "암이 퍼진 것 같다. 영치뼈에 흐릿한 암세포의 사진이 포착된다. 지금은 수술을 할 수 없고 2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한 후 호전되면 경과를 봐서 수술을 하던지 그 후에 결정한다."는 의료진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후 어느 날 대학병원에 항암 치료를 가던 중, 학교를 들른 부부의 승용차에서 함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도 없고,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암담한 현실에 부부는 눈물코물 범벅이 되어 울기만 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인식한 그 두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이나 희망을 줄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같이 우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머리 속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일 날 우리교회 중보기도팀에 기도 부탁드릴 생각이 났습니다. A4 용지에 그 상황을 타이핑하여 당시 중보기도팀장이신 신선자 권사님께 드리고 중보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 우리교회 중보기도팀에서는 이들을 위해 집중 기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 중보기도팀 권사님들께서는 저만 만나면 그 신혼 부부 좀 어떠시냐? 수많은 안부 질문을 들었지만 시원스레 대답해 드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날이 2개월이 조금 지난 어느 날 퇴근 후 신 페스탈로찌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밝고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내용인 즉 "어제 정밀 검사를 했는데 영치뼈에 있던 암세포 같이 보였던 것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아마도 섬유질 같이 보인다. 전이된 것이 없어 수술을 해도 된다."는 의료진의 진단이 내려져 수술 날짜를 잡았다며 수술 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며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수술도 잘 되었고 항암 치료로 모두 빠졌던 머리카락도 1년이 지난 지금은 다 회복되었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왕절개로 일찍 출산한 아이(신민서)는 그 뒤 식성도 좋고 잠도 잘 자고 무럭무럭 잘 자라 100일 되는 날엔 안동교회 중보기도팀에 감사의 떡을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중보기도팀에서도 신권사님께서 100일 선물로 아기 옷

을 보내주시어 제가 즐겁게 그 심부름을 하였습니
 다. 지금은 돌을 지나 아장아장 걸어다닌다고 합
 니다. 껌가 쏟아져도 모자랄 신혼부부 시절 큰 절
 망을 이겨낸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모두 하나
 님의 은혜이고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지금은 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맨 날 울고 다니던 신
 페스탈로찌 선생님의 얼굴은 전과 같이 맑은 웃음
 을 되찾았습니다. 작년 한해 담임도 제외해 드렸
 는데 올해는 담임도 맡겼습니다. 물론 그 반(1학
 년 7반) 학생들은 축복받은 학생들이지요!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놓았던 농구도 다시 시작하였
 습니다. 우리학교 농구장에 오시면 언제든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데 학생인지 선생님인지 구분
 은 절대 안 됩니다. 안동교회 중보기도팀과 신봉
 열, 김연경, 신민서네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연
 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신 페스탈로찌 선생님도 안
 동교회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늘 합니다.



위에 사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민서의 귀여
 운 사진입니다. 신부는 항암치료는 마친 상태입니
 다. 현재까지 전이되지 않고 좋은 상태입니다. 지
 금까지 치료하고 아이 키우라 복직은 못하고 있습
 니다. 이 가정을 위해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교회소식



▶ 소허당에서 주최하는 성지순례



▶ 세례식



▶ 토요일문화교실(롤링 볼 뮤지엄 & 목공체험)





▶ 부활절 다과행사()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탈북인들 위한 교회 관심 기대"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석주)는 지난 3일 위원회 임원 및 전문위원과 함께 정부의 탈북인 교육기관인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교회를 방문하고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에서 위원장 김석주목사(마장제일교회)는 하나교회 강철민목사에게 현황을 소개받고 앞으로도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매년 탈북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원은 지난해 12월 건물을 증축해 연간 3천6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으며,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형시계 3개, 지난 2월 대형거울 4개를 지원하는 등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왔다. 이외에도 하나교회에 매년 선교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는 "거울 같은 작은 비품들도 탈북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피아노를 비롯해 성경과 찬송가 등 교회 비품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하나교회에 한국교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후원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위기 대책, 교회가 세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성경적 가치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총회 사회봉사부 주최 2009년 교회와 사회 포럼이 경제에 대한 교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 가운데, 경제 문제를 윤리·생태·노동에 입각한 대안 모색의 장이 지역적으로 마련될 계획이다. 지난 3월 27일 연동교회(이성희목사) 다사랑에서 2차모임을 가진 사회봉사부 사회문제위원회(위원장:박래창)는 평가와 더불어 경제위기 관련 포럼을 지역별로 확대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모임에서 위원들은 지난 2월 열렸던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포럼이 경제위기의 문제를 한국교회가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타교단의 관심을 유발했다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을 같이 했다. 하지만 소극적인 홍보로 인해 교단의 입장을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사회봉사부는 지방 신학교들의 협력 하에 오는 5월 중으로 전주, 광주, 대구 지역에서 경제위기 관련 포럼을 개최해 목회자와 신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지역별 포럼에서는 '경제위기와 재테크에 대한 기독교윤리', '경제위기와 생태문제', '경제위기, 노동과 빈곤복지' 등의 주제가 다뤄지며, 신학자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선다.

한편 지난 제93회기 총회에서 다뤄진 사회봉사부 수임 안건 중 '안티기독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안티기독교가 생겨난 원인을 먼저 파악하고 한국교회가 참회기도회 등을 전개하며 성찰하는 기회로 삼는 동시에 기독교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구호비 전달

총회 사회봉사부(부장:박래창 총무:이승열)는 총회 임원회에서 위탁받은 특별구호지원비를 노숙인, 결식아동, 홀사모 등 소외된 곳에 우선 전달키로 했다. 사회봉사부는 지난 6일 부서 사무실에서 임원회를 갖고 노숙자쉼터협의회에는 각 쉼터마다 노숙자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비를, 예장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에는 도내 급식재정 지원이 중단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라남·

북도 강원도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를, 목회자유가족협의회에는 홀사모들의 재활프로그램 정책개발 지원비를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전라도 및 강원도의 50여개 지역아동센터가 급식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예장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를 통해 지원처를 면밀히 조사한 뒤 전달하기로 했으며, 노숙자쉼터협의회와 목회자유가족협의회 경우 단순 지원비가 아닌 대상자들의 재활 프로그램을 연구 도입해 시행할 수 있는 지원비로 후원할 방침이다. 한편 제93회 총회에서 장애인주일이 종전 4월에서 6월 셋째 주로 미뤄졌으나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행사를 개최하는 장애인 지원 단체들을 위해 발달·지체장애인연합회에 후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특별히 중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가정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친근한 매체로 소통한다.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등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 사업에 대한 교계의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본교단 총회도 IPTV를 통한 교단 홍보와 선교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됐다. 지난 3월 31일 총회 임원회는 커뮤니케이션위원회(위원장:손인웅)가 제출한 본교단과 기독교복음방송(대표이사:인명진)의 방송선교를 협약 체결 청원을 허락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협약식을 갖는 등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IPTV 협약은 지난해 7월 기독교복음방송이 처음 본교단에 제안해 왔으며, 그 후 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친 설명회와 회의를 통해 본교단의 행사나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가 IPTV로 제공될 경우 여러 가지 선교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협정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왔다.

최종적으로 마련된 협정서는 양 측의 역할을 본교단의 경우 △기독교복음방송의 IPTV 방송 시스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방송 개국 △IPTV 방송에 대한 총회와 노회 및 교회에 대한 홍보 △방송 콘텐츠를 위한 산하기관과 업무 협조 △총회의 다양한 뉴미디어 방송의 운영 및 관리로 정하

고 있으며, 기독교복음방송은 △IPTV 시스템에 예장총회 방송의 운영 지원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기술, 장비 등의 협력 △효율적인 방송 운영을 위한 각종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효기간은 2년으로 콘텐츠의 소유권은 총회가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협력과 기술 지원 등에 대한 세칙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위원회는 사업의 규모와 파급효과 등을 감안, 협약서의 세부 조항들을 법률 및 IT 전문위원들을 통해 검토했으며, 소위원회와 전문위원들의 모임을 통해 최종적으로 협약 내용을 정리하는 등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비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IPTV가 현재 보급 단계이며, 선교적 역할도 시험대에 올라 있는 만큼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비교적 많은 인력과 재정을 필요로 하는 방송 분야인 것을 감안해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장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IPTV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이윤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익성 검토가 필수적이다. 또한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매체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투자와 연구, 준비를 병행하기 위한 예산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콘텐츠적 측면에서는 IPTV라는 매체를 통해 송출되는 다양한 일반 프로그램들과의 경쟁도 예상된다. 모든 방송사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본교단의 IPTV 방송도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확보도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커뮤니케이션위원장 손인웅목사(덕수교회 사무)는 "앞으로 IPTV를 통해 총회를 비롯한 산하기관, 교회, 성도들까지 적극적으로 좋은 정보를 공유한다면, 교단의 발전과 선교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총회가 미래를 준비하며 진행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생명' 열기 호남에도 끊는다

호남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살리기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지난 제92회기 호남신대와 영남신대에서 생명살리기 운동10년 세미나를 개최해 지역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던 총회 생명살리기운동 10년위원회(위원장:지용수)가 93회기에는 한일장신대학교와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생명 열기'를 확산해 나간다. 28일 전북 8개노회가 협력한 가운데 한일장신대학교 봉사교육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구춘서교수가 '하나님 나라와 생명목회'를 주제로 강의했고 김제노회의 '찾아가는 복지 선교', 전북·전주노회의 '이주노동자선교 프로그램'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여기에 김옥순교수가 신학적 반성과 제안을 내놓았다. 그 다음 차순으로 5월 22일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는 서울경기지역 12개 노회가 연계하며 이형기교수의 '생명살리기운동 10년의 신학과 실천', 박충구교수의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본 존엄사' 제하의 강의와 서울서남노회의 '국내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선교', 안양노회의 '녹색교회 확산 사업' 시행 사례가 발표된다. 노회 산하 목회자 및 교수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생명살리기 운동10년 세미나는 신학교와 지역노회의 참여를 불러 일으키는 가운데 생명살리기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세미나 개최를 앞두고 지난 2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2연수실에서 열린 생명살리기 운동10년위 2차 회의에서는 평신도들에게까지 생명살리기 운동이 확산되도록 남선교회 여전도회 임원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교재 집필이나 세미나 시 이 운동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를 위해 생명살리기 운동10년위 임원 및 전문위원들이 주관한 가운데 논의를 위한 조속한 만남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목회

"힘겹지만 함께 합시다"

학생 없는 초·중·고등학교 통폐합, 마흔살 넘은 총각들의 국제 결혼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

그리고 61세의 청년회장... 극심한 이농과 고령화로 젊은이가 없는 농촌 사회와 교회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다. 이처럼 농촌 교회의 경험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하기 위해, 위기의 농촌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의 노회가 연합하는 농어촌선교협의회가 잇따라 구성되고 있다.

총회 국내선교부(부장:김수음 총무:진방주)는 지난 2일 청주 약속의 동산에서 충청강원지역 농어촌선교 세미나를 개최하고 충청과 강원 지역 7개 노회 산하 교회의 농촌선교 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2월 충북 충청 대전 대전서 충남 강원 강원동 노회 등 충청 강원지역 7개 노회가 구성한 농어촌선교협의회(회장:조면호)가 주관했다. 농어촌 목회자 부부 등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직전총회장 김영태목사(청북교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자'를 주제로 설교하고 시대적·사회적으로 힘겹게 목회하는 농촌의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목회하자"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농촌지역의 생명목회/유수상목사(증촌교회) △농촌과 문화선교/김영진목사(시온교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됐다.

평신도교육은 '청지기대학'으로

교회에서 평신도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총회 8개전문대학 과정으로 마련됐다. 총회 교육자원부(부장:나정대 총무:김치성)와 훈련원(원장:이광선 원감:이일호)이 협력해 지난 3년간 준비해온 청지기대학이 지난 2-3일 유성에서 개최됐다. 청지기대학은 평신도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교회와 사회에서 섬김의 생활을 하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날 청지기대학은 최근 교재가 완성됨에 따라 처음 마련됐다.

청지기대학 교재는 교회의 평신도가 주인이 맡겨준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청지기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청지기의 △섬김 △자기관리 △영성과 경건생활 등을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교육자원부 총무 김치성목사는 청지기대학에 대해 "30-50대 청장년의 삶의 자세를 위한 교육세미나"라고 설명하고 "가장 장로교회적

인 평신도교육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청지기대학은 '정책총회·사업노회·훈련원'이라는 기구개혁 정신에 따라 총회 8개전문대학 과정으로 설치된 것이며, 예산 등 행정적인 문제로 교재개발이 늦어져 3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최근 교재개발이 끝났다. 교육자원부와 훈련원은 교육교재를 보완해 지도자교육을 거쳐 교회에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본교단 총회는 그동안 제직훈련을 비롯해 구역장훈련, 교사대학 등 교회에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교육,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왔으며, 평신도를 청지기의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청지기대학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19개 노회에서 5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 청지기대학이 노회와 교회에서 환영받고 확산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이탈리아 지진

지난 6일 강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이탈리아 라퀼라(L'Aquila) 지역 주민들과 구호팀원들이 지난 부활절에도 임시로 마련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등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로마에서 동북쪽으로 1백여 킬로미터 떨어진 아브루조(Abruzzo) 주의 중심지로 산악능선에 자리잡은 라퀼라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리히터계로 5.8도를 기록했으며, 지난 1월부터 진동이 계속되다가 6일 새벽 이탈리아 중부지방 전역에 진동과 굉음을 전한 큰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안사통신은 사고 직후 아브루조 주의 지진 피해를 총 1백79명 사망, 34명 실종, 1천5백여 명 중경상으로 보도했으며, 더불어 1만7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중에도 지진이 발생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무너진 건물 밑에서 생존자들이 기적적으로 구조되는 반가운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주가 지난 시점에서 사망자는 총 2백94명으로 집계됐으며, 건물 1만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학교, 병원, 관공서들의 파손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일

정으로 잡혀있던 러시아 방문도 취소하고 국가재난을 선포했으며, 이재민 지원과 도시 재건을 위해 3천만 유로(약 5백30억원)를 지원하고 1만6천-2만명을 수용할 텐트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개인 세금의 일부를 피해자 지원 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총회 파송 이탈리아 선교사 한인성목사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라퀼라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살고 있지만 아직까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전하며, 피해 현장이 자신이 시무하고 있는 로마 새생명교회와 1백20km 떨어진 곳이지만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진동의 느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이탈리아인과 한인들이 고난주간에 일어난 이번 지진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이겨내기를 바란다"며, 한인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섬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촌우물가

2009년 5월호 · 통권 제191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인종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중 혁

발행일 : 2009년 5월 3일